



## TV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유수정**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강사

### Political Bias of TV Programs on Current Affairs\*

**Jinah Bae\*\***

(Professor, Department of Visual Stud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ojung Yoo\*\*\***

(Lecturer, College of SKKU Institute for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ias in domestic TV programs on current affairs and the topography of bias in each channel,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current affairs programs aired on terrestrial (KBS, MBC, SBS) as well as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Channel A, MBN, JTBC, TV Chosun). By measuring the argument intensity and concentration of opinions in the moderators, panels, and footage item by item, the bias topography was identified through coordinates with the argument intensity on the x-axis and the concentration of opinions on the y-axis. Overall, the argument intensity of moderators and footage was low, while that of the panels proved high. By topic, former minister Cho's items were more intense than other topics, while by channel, TV Chosun, Channel A, and MBN showed higher argument intensity than that of other channels. The concentration of opinions was generally low. KBS and JTBC were friendly t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hereas the rest of the channels were friendly to the opposition parties. By topic, those items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revealed a higher concentration of opinions than other topics, and yet the bias of TV Chosun and Channel A was confirmed in the topic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Analysis of bias topography shows that most programs were classified as mechanical neutral programs, with TV Chosun at the border between dogmatic and argumentative programs. The bias landscape was subject to different topics with TV Chosun and Channel A classified as dogmatic programs on the topic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and with TV Chosun as an argumentative program on other topics. These finding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onfirm the bias landscape of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19(이 논문은 2019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jinabae.rosa@gmail.com, 1<sup>st</sup> author

\*\*\* ohsoojung02@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domestic TV programs in a way to extend existing stud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ed for establishing specific norm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current affairs programs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Keywords:** TV Current Affairs Programs, Political Bias, Argument Intensity, Concentration of Opinions

#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한국 언론은 정당의 이념적 노선과 조응하면서 정치 시스템의 진영 논리를 그대로 수용 및 확산한다는 점에서 높은 정치 병행성을 갖는다(윤석민, 2020). 또한, 지배적 언론사들은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부응하는 편향적 보도를 통해 정치적 담론 형성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정치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여러 연구에서 한국 언론이 정당과 병행 관계를 이루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으며(김영옥·임유진, 2009; 양정혜, 2001; 윤영철, 2000; 이완수·배재영, 2015 등), 언론이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영옥, 2011; 이준웅 외, 2010; 최영재, 2011 등). 이처럼 “언론은 그 속성상 정치적이며, 한국의 언론은 때로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최영재, 2011, 138쪽).

언론의 정치적 편향은 고의적으로나 우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Lazaridou & Krestel, 2016).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언론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며(Clayman, Elliott, Heritage, & Beckett, 2010), 뉴스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하다(Lichter, 2017). 흔히 불편부당성은 편향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슈를 선택하고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이들 두 개념은 공존할 수 있다. 또한, 편향성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언론이 반드시 바람직하고 좋은 언론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배제해야 할 가치로 취급하기보다는 언론에 의해 편향성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옥(2009)은 ‘정당한 정교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언론의 편향성을 저널리즘의 속성상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더라도, 편향성은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 편향성이 공정성 인식, 언론에 대한 신뢰,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언론의 편향성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민영, 2016). 더 나아가 언론의 편향성이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과 맞물리면서 편향된 언론 매체를 편향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소통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편향성의 문제를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언론이 보여주는 편향성의 본질과 속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언론이 추구해야 할 편향성의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관심을 둔다. 방송의 정

치적 편향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비교하거나(최선규·유수정·양성은, 2012), 뉴스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해 왔다(구교태 2008; 김병진·이상은·양종훈, 2017; 원희영·윤석민, 2015; 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조은영·유세경, 2014). 뉴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은 우리 언론의 정파성을 확인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방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사 프로그램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제기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론 및 정치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한 이후 편성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한 포맷이 제시되면서 시사 프로그램은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생산 및 확산하는 콘텐츠로 지목되고 있다(강찬호, 2013; 하주용, 2014).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적용해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사례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한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조선일보 지면에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상파의 시사 프로그램 중 일부가 편향성이 높은 독선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편향성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진보 언론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이 연구 자체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편향성은 언론의 본질적 속성이며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편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삼는 것보다는 언론이 보여주는 편향성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진영 논리에 근거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지상파 채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언론의 편향성 지형을 폭넓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하는 국내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하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편향성의 특징과 전체 방송 환경에서의 편향성 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편향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진단하고, 언론의 바람직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이론적 논의

### 1) 한국 언론의 정파성

언론은 정치 시스템과 역동적으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다. 할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04)는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이라는 개념으로 언론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 병행성은 언론과 정당의 이념적 노선이 조율하는 정도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언론의 내용이 갖는 이념성, 인적 조직적 수준에서 언론과 정당의 연계성, 언론 수용자와 정당 지지자의 중복, 언론인의 역할 정향 및 실천과 정당 노선과의 일치성으로 구성된다”(이준웅 외, 2010, 110쪽에서 재인용). 한국의 언론이 정당과 병행 관계를 이루면서 정파성을 보인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김영욱과 임유진(2009)은 보수지와 진보지가 정부시기에 따라 명백히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윤영철(2000)은 신문-정당의 병행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입증했다. 양정혜(2001)는 의료분쟁 보도의 정치적 정파성을 분석했고, 이원수와 배재영(2015)은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분석을 통해 사고 이슈에서조차 정파성과 이념성이 은밀히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준웅 등(2010)은 “한국 언론인의 정계 진출이 빈번하고, 한국 언론의 정치적 경향성이 주로 문제로 지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사회의 정치 병행성이 높다고 진단한다(110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석민(2020)은 한국 사회의 정치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양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병행성)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정치병행성이 정치권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팽배한 반규범적 과잉정치 성향, 즉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진영 논리의 일환”이라고 지적한다(143쪽).

한국 언론은 정치 병행성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화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준웅 등(2010)은 조중동과 같은 시장 지배적 신문사들이 객관적 시사보도를 넘어서서 편향적 주창 저널리즘을 구현하면서 정치적 담론권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주의 이행기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 언론은 민주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성과를 누렸으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확장된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 아래 ‘민주적 담론 전략’을 활용해 정치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133-134쪽). 즉 민주주의 이행기에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당을 능가할 만큼 커지면서 정치 권력화되었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영재(2011)는 “언론이 속성상 정치적이며 때로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지적한다(138쪽). 언론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자인 동시에 행위자로서 정치권력과 교섭·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언론의 권력화에 대해 민주화 이전부터 권언

유착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진보정권 출현 이후 정치권력과의 갈등과 충돌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언론의 정파성이 커졌다는 김영욱(2011)의 진단 역시 이들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정치 병행성 및 정치 권력화와 더불어 시장의 요구에 의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객관주의 언론 모델보다는 특정 정파와 교감하는 정파적 언론 모델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언론의 정파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된다(최영재, 2011).

## 2) 미디어 편향성의 본질과 효과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의 과정에서 편향은 고의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해되며(Lazaridou & Krestel, 2016), 많은 연구자가 미디어 편향성 분석에 주목해 왔다. 멀라이너던과 슬라이퍼(Mullainathan & Shleifer, 2002)는 미디어 편향의 2가지 유형으로 이념적 편향과 스핀(spin) 편향을 제시한다. “이념적 편향은 독자들에게 특정한 방향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이며, 스핀 편향은 독자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시도”이다(p.2). 전자는 정치적 편향성, 후자는 “편향성은 이익이 되는 장사”라는 관점(강준만, 2013, 28-39쪽)의 경제적 편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념적 편향성이 축소되리라는 예측과 달리 스핀 편향성에 의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오히려 확장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논문에서는 멀라이너던과 슬라이퍼가 제안한 2가지 유형의 편향성 중 정치적 편향성에 주목한다. 정치적 편향성은 언론사의 정파적 성향이 보도와 논평 등의 불균형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즉 정파성이 ‘이념과 가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언론사가 일관되게 드러내는 태도와 입장’이라면, 편향성은 “정치적 성향에 의해 나타나는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치집단에 대한 언론의 치우침”(민영, 2016, 136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편향은 저널리즘 관행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달렌(Van Dalen, 2012)은 구조적 편향에 대해 분석했는데, ‘권력’과 ‘갈등’이라는 두 가지 뉴스 가치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편향성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정부 및 국회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데 있어 정치 시스템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 병행성이 나타나는데, 갈등을 뉴스 가치로 중요하게 취급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된다. 정치적, 경제적, 구조적 차원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디어 편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뉴스에서 사실과 의견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객관성의 신화(Schudson, 2001)가 바람직한 가치로 수용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편향적인 언론은 바람

직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미디어의 편향은 나쁜 것인가? 미디어는 반드시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가? 클레이만 등(Clayman et al., 2010)의 주장처럼 “언론에서 엄격한 중립성(불편부당성 혹은 편파적이지 않음)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p.228). “뉴스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Lichter, 2017, p.403).

김영욱(2011)은 불편부당성, 균형성, 진실성과 정파성(정치적 편향성)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이들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불편부당성은 형식적인 의미의 무차별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차별된 그리고 보는 시각에서는 한쪽으로 기운 판단과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정파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부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111쪽). 균형성은 언론사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혹은 정치적 설득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균형적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사(예컨대, 공영방송)가 아니라면 균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112쪽). 결국 “정파성은 불편부당성을 취하는 언론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진실성에 반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비판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114쪽).

미디어의 편향성이 저널리즘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고 편향을 이유로 언론을 비판할 수 없다 하더라도, 편향성은 수용자들의 언론 공정성 및 신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언론의 편향성은 사람들의 뉴스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mborg, Donnay, & Gipp, 2019). 정파적 수용자들은 보수 혹은 진보 편향적인 기사에 노출되었을 때 적대적 매체 지각의 경향을 보인다(김경모·이승수·김상정, 2016). 김경모와 이승수(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향적 뉴스기사는 수용자의 정치 이념 성향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사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파적 수용자들은 자기범주화의 정파적 활성화에 따라 편향 기사를 내집단으로 범주화하면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외집단으로 범주화할 경우 공정성을 낮게 평가한다”(184쪽).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독자일수록 한국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준웅·최영재, 2005). 이준웅과 최영재는 이를 공정성 위기 가설로 설명하는데, 신문이 정치적으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평가받으면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곧 구독률과 열독률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디어 편향성에 대한 인식은 매체 지각을 넘어서 미디어·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및 정치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민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저널리즘 전문성은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인

식은 제도언론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이 특정 정치집단에 편향되어 있다고 평가할수록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 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언론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츠파티와 코헨(Tsfati & Cohen, 2005)은 미디어 편향성에 의해 형성되는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인식(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미디어 신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미디어 신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리히터(Lichter, 2017)는 “정권 우호적인 미디어의 편향성은 공공 이슈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 구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p. 406).

### 3) 방송의 편향성에 관한 기존 연구

방송의 편향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편향성의 경향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교태(2008)는 지상파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후보별 보도시간과 후보별 통화 및 인터뷰 사용 시간, 논쟁적 이슈(BBK 관련)에 대한 찬반 진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거방송 보도가 선두주자와 여당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선규 등(2012)은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전의 국내 지상파 방송과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교 분석했는데, 신문에서 편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은영과 유세경(2014)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다양성을 연구하면서 채널별 보도 관점의 특성을 분석했다. 철도 노조파업 보도의 관점을 분석한 결과 JTBC가 유일하게 파업에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으며, 나머지 채널은 모두 부정적인 관점을 취했다. 특히 TV조선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그 다음은 채널A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희영과 윤석민(2015)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종합편성채널의 메인뉴스와 SBS의 메인뉴스를 정량 및 정성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했는데, TV조선과 채널A는 SBS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병진 등(2017)은 MBC와 JTBC의 저녁종합뉴스를 대상으로 아이템 수, 주제의 편향성, 뉴스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MBC는 탄핵관련 보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하려고 했던 반면, JTBC는 지속적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탄핵의 정당성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 등



(2017)의 연구에서는 보도 주제의 측면에서 MBC와 SBS가 새누리당에 편향적이며 종합편성채널들은 중립적이었다. 보도 논조의 측면에서는 MBC와 TV조선이 새누리당에 편향적이었고 JTBC가 새정치민주연합에 편향적이었다.

공영방송의 경우 신문이나 종합편성채널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 병행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신문이 민주화 이후 정치적, 이념적 분열과 더불어 이념적 노선이 조율하는 정당과 정치적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치 병행의 길을 간 것과 달리, 공영방송은 집권세력에 의한 강제적 정치 병행성의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후견자)이 바뀔 때마다 후견자의 이념과 정파로 탈바꿈하고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파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치 병행성은 공영방송 보도국 내의 정파적 이념적 균열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최영재, 2014).

#### 4)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방송의 편향성에 관한 연구 중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보도의 양, 주제의 편향성, 보도의 관점·논조·프레임(김병진 외, 2017; 원희영·윤석민, 2015; 이승엽 외, 2017; 조은영·유세경, 2014; Eberl, Boomgaarden, & Wagner, 2017; Schiffer, 2006)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달리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자와 패널, 자막, 영상 등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나타난 논조·관점의 편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구교태, 2016;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윤영철, 2007). 윤영철(2007)은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통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주장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구교태(2016)는 자막 분석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확인했다. 주제별로 자막의 사용 횟수와 내용을 분석했는데, 야당 관련 자막이 여당 관련 자막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야당 관련 자막의 대다수는 비난, 부정, 의혹, 반대 등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연구에서는 진행자, 출연자(내레이터, 리포터, 패널 등), 인터뷰이, 자료화면, 부가적 화면요소(자막, 크로마키 등)의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를 통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한 바 있다. 주제의 선정과 배열이 프로그램 전반의 정치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의 발언 및 영상과 자막 등 자료화면에 나타난 정치적 태도가 곧 프로그램의 편향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연구는 진행자, 출연자, 자료화면, 화면 요소 등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고려하여 국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했다. 편향성의 분석

차원을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시기의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비교했다. 주장 강도는 논쟁적 사안과 관련하여 진행자, 출연자(내레이터, 리포터, 패널), 인터뷰이, 자료화면, 부가적 화면요소(자막, 크로마키) 등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이 표명하는 주장의 강도를 뜻하며, 각 구성요소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0과 2 사이의 값으로 점수화했다. 의견 집중도는 논쟁적 사안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의 의견이 집중된 정도로서, 한 아이템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의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얼마나 집중되었는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MBC의 통합 주장 강도(1.0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SBS(0.87), KBS(0.77)의 순이었다. 정부 시기별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0.81)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0.97)에 통합 주장 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의견 집중도는 SBS(2.4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MBC(2.0), KBS(1.79)의 순이었다. 정부 시기별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1.95)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2.13)에 의견 집중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에 따라 TV 시사 프로그램의 유형을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Dogmatic Program: 강한 주장, 한쪽 의견으로 집중),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Argumentation Program: 강한 논쟁, 다양하고 균형 잡힌 입장), 편애적 시사 프로그램(Favorable Program: 약한 주장, 한쪽 의견으로 집중),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Mechanical Neutral Program: 논쟁이 약하거나 없음, 중립적이거나 균형적)으로 분류했는데, 국내 시사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계적 중립 혹은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가 수행한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연구는 조선일보(신동훈·구본우, 2019, 2, 11, 2019, 2, 12, 2019, 2, 13a, 2019, 2, 13b, 2019, 2, 13c)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구의 발주처가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라는 점에서 편향적 연구라는 지적(금준경, 2019, 2, 15; 문현숙, 2019, 2, 13; 정민경, 2019, 2, 25; 정철운, 2019, 2, 11, 2019, 2, 15)과 연구 방법론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김준일, 2019, 2, 17; 이명선, 2019, 2, 13; 이미나, 2019, 2, 13; 이정환, 2019, 2, 14; 정민경, 2019, 2, 12),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채 지상파 채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다는 문제(이정환, 2019, 2, 14; 정민경, 2019, 2, 12)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비판적 평가는 분석 대상에서 중편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발주기관 신문사의 집중적인 보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편향성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편향성은 미디어 내지 언론의 본질이며 옳거나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서 적절치 않다. 편향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편향성의 강도 및 집중도의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한 저널리즘의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향의 편향성을 가진 언론이 건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지상파 채널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식의 편향성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지상파 채널로 한정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분석은 우리 방송의 편향성 지형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정민경, 2019, 2, 12). 이에 본 연구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하여 우리 방송의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한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제안한 두 차원(주장 강도, 의견 집중도)을 적용하여, TV 시사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편향성의 특징과 전체 방송 환경에서의 편향성 지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TV 시사 프로그램은 주장 강도 및 의견 집중도 차원에서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

1-1.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주제에 따라 TV 시사 프로그램의 주장 강도는 어떠한가?

1-2.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주제에 따라 TV 시사 프로그램의 의견 집중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장 강도 및 의견 집중도에 따라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지형은 어떻게 분포되는가?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의 반복연구(replication study)로서 국내 TV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반복연구는 연구의 일반화나 이론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도구와 절차를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되풀이하는 연구로서, 선행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심리학회, 2000).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언론에서 방법론적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보수 및 진보 방송을 고루 분석하지 않아 양적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김준일, 2019, 2, 17; 정민경, 2019, 2, 12).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4사를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편향성과 논쟁적 사안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명선, 2019, 2, 13; 이미나, 2019, 2, 13)을 고려하여, 편향성과 논쟁적 사안을 비롯한 주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 설계 전반에 걸쳐 타당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의 미디어 공정성이나 편향성 연구는 서베이 연구가 대부분이

며 내용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미나, 2019, 2, 13)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내용분석을 통해 언론의 편향성 정도를 확인한 선행 연구가 누적되어 온 바 있으며, 수용자가 인식하는 편향성과 다른 차원에서 언론의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행자의 의견 개진을 편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정환, 2019, 2, 14)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의견을 주장한다면 이는 편향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더간 신뢰도가 지나치게 높아(0.95) 코더간 상의 하에 코딩이 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김준일, 2019, 2, 17)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더간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코더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코딩 훈련과 사전분석을 실시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반복연구로서 기존 연구의 설계와 측정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분석 대상의 확대 및 주요 개념의 정의, 코더간 신뢰도 확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 1) 분석 대상

3개의 지상파 채널(KBS, MBC, SBS)과 4개의 종합편성채널(MBN, JTBC, TV조선, 채널 A)에서 평일 낮 시간대에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수의 패널이 출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슈에 대해 평론하고 논쟁하는 형식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KBS <사사건건>, MBC <2시 뉴스외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MBN <뉴스&이슈>, JTBC <전용우의 뉴스ON>,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테스크>이다. 분석 기간은 공휴일 결방을 피해 2019년 8월과 10월의 각각 둘째 주로 정했으며, 2019년 8월 5일(월)부터 9일(금),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의 10회 방송분, 총 70회차이다.<sup>1)</sup>

## 2) 조작적 정의

### (1) 아이템,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주제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단위는 '아이템(items)'이다. 아이터은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서 주제와 구성 면에서 분리 가능한 단위로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꼭지'와 대등한 개

---

1) 분석 기간 중 주요 정치적 사안으로는 2019년 8월 2일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었으며, 8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로 지명되어 10월 14일 사퇴하기 전까지 가족 수사 및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넘이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진행자의) 언어적 신호와 주제를 담은 자막, 그래픽 및 효과음으로 구성된 로고타이틀, 출연자 등의 변경을 고려하여 아이템을 구분했다. 총 70회차에서 449개의 아이템이 방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야 갈등이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 공방이 있는 아이템 190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이 된 낮 시간대의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패널이 출연하여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연자들이 발언할 때에는 관련 영상이 제공되고 주요 발언은 자막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는 ‘진행자’, ‘패널’, ‘자료화면’이라 할 수 있다. 진행자는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토론을 이끌어가는 인물로서 패널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패널은 기획한 주제와 관련해 섭외된 출연자로서 대체로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며 토론이 중심이 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료화면은 진행자와 패널이 발언할 때 주제와 관련된 영상으로서 시각적인 정보를 담게 된다.

아이템이 다루는 주제는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인지 비정치적인 사안인지에 따라, 혹은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가에 따라 편향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등하는 아이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의 갈등 정도에 따른 편향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 기간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언론이 수많은 담론을 생산했던 주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슈(Items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 및 검찰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관련)이다. 이에 주제를 조국 전 장관 관련 아이템과 기타 여야 공방 아이템(Other items: 예: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정치인 욕설 및 막말 공방, 패스트트랙, 나경원 전 의원 악플러 고소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전체 190개의 분석대상 아이템 중 조국 전 장관 관련 여야 공방 아이템이 110개였으며, 그 외 여야 공방 아이템은 80개였다.

Table 1. Number of Items by Channel

Item*	Channel								Total
	KBS	MBC	SBS	JTBC	MBN	TV Chosun	Channel A		
Items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7	11	28	10	13	15	26	110	
Other items	6	12	12	11	8	14	17	80	
Total	13	23	40	21	21	29	43	190	

\* Items related to the argu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 (2)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주장 강도

편향성의 첫 번째 차원은 주장의 강도이다. 주장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 또는 신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의견은 자료화면에서도 시각적 정보 전달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주장을 '아이템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진행자와 패널,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영상에서 취하는 발언 및 태도'로 정의한다. 주장이 어느 한쪽에 우호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①윤색적인 형용사, 부사, 동사,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 ②역사적 사례(교훈), ③다른 사람의 말, 글을 인용하거나 캐치프레이즈를 사용, ④자신의 가치가 바람직한 규범이라고 호소, ⑤명확하게 방향성이 있는 질문 등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주장 강도(argument intensity)는 주장의 세기를 의미한다.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발언에 절대적, 최상(하)위 등 최상급을 의미하는 부사나 형용사 등이 붙거나 반복이나 반복법을 통해 강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유수정·이건호, 2017) 진행자나 패널이 특정한 태도를 얼마나 강하게 취했는지를 파악한다.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해 단순히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것 이상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고,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통해 측정 균질성이 확보되면 결과 설명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수정·이건호, 2017).

주장 강도가 높다는 것은 특정 쟁점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감정적인 표현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사례를 인용하거나 규범적 차원에서 의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높은 수준의 주장 강도가 허용되지 않지만,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가 개발한 편향성 측정도구를 활용했다.<sup>2)</sup> 이는 주장의 이념 방향과 무관하게 해당 발언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담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각 아이템 단위에서 프로그램 구성요소별로 측정이 이루어진다. 정부·여당 및 야당에게 유리한 정도에 따라 (-2), (-1), (0), (+1), (+2)로 코딩하였으며, 주장 강도 값을 구할 때에는 방향성을 배제한 절대 값을 적용했다. 주장 강도의 조작적 정의와 사례는 아래 <Table 2>에 제시하였다.

---

2)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편향성(주장 강도) 측정 도구는 조은영과 유세경(2014)이 보도 관점을 측정한 척도 및 이승엽 등(2017)이 보도논조의 편향성을 측정한 척도와 유사하다. 조은영 등은 앵커/기자의 태도(멘트, 헤드라인)와 취재원의 태도(발언 내용)를 5점 척도(① 파업에 부정적/비판, ② 대체로 파업에 부정적, ③ 중립(무입장), ④ 대체로 파업에 긍정적, ⑤ 파업에 긍정적/지지)로 측정했다. 또한 이승엽 등은 뉴스보도의 논조나 관점이 특정 정당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2에서 2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Table 2. Argument Intensity : Operational Definition and Examples

Operational Definition	Examples of Speech
-2: Clearly favorable or friendly t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KBS, August 5, 2019, Panel "Then what kind of alternative does Hwang Kyo-ahn have? If he sides with Japan and the US day and night, and only shoots at our government and President Moon Jae-in, is that an alternative?"
-1: Generally favorable or friendly t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BC, October, 6, 2019, Moderator "It's almost like being addicted. Now(About delving into allegations of Minister Cho's family at the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0: Maintain neutrality or balance	SBS, August, 8, 2019, Moderator "The Democratic Peace Party has 14 seats, and there are 10 members of the Alternative Politics that National Assemblyman Yoo Seong-yeop mentioned, these 10 people are leaving the party. Are they leaving the party soon?"
1: Generally favorable or friendly to the opposition party	Channel A, August, 6, 2019, Panel "Literally, it is a situation where the president is a little embarrassed. It's a little frustrating."
2: Clearly favorable or friendly to opposition party	TV Chosun, August, 6, 2019, Panel "I think this is a very inappropriate attitude. How is that a groundless story?"

### (3) 의견 집중도

편향성의 두 번째 차원은 의견 집중도(concentration of opinions)이며, 이는 주장이 집중된 정도로 정의된다. 즉, 의견 집중도는 프로그램의 여러 구성요소의 주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점수화한 것으로서, 진행자의 주장, 패널 주장의 평균, 자료화면에 나타난 주장을 더한 값이다. 시사 프로그램이 다양한 주장을 고루 담아냄으로써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낮은 의견 집중도 수준이 시사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text{아이템의 의견 집중도} = \text{진행자 주장 값} + \text{패널 주장 값의 평균} + \text{자료화면 주장 값}$$

진행자, 패널, 자료화면 등 각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주장 값의 범위가 -2에서 +2이므로 의견 집중도의 범위는 최소 -6에서 최대 +6까지의 값을 가진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균형적인 의견의 분포를 보이고, -6에 가까울수록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의견 분포를 보이는 반면, +6에 가까울수록 야당에 편향적인 의견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편향성 지형

편향성 지형(quadrant coordinates of bias)은 주장 강도 및 의견 집중도에 따라 각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여러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4사분면의 좌표이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의 연구에서 제안한 좌표를 적용하여, x축에는 주장 강도를, y축에는 의견 집중도를 제시했다. 앞의 연구에서는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에 따라 기계적 중립, 편애적, 정론적, 독선적 시사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유형 분류 방식을 적용했으며 편향성의 기준은 주장 강도 1, 의견 집중도 2로 설정했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의 통합 주장 강도가 1 이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의 평균값이 1 이상인 경우로서 '대체로 특정 입장에 우호적인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견 집중도가 -2 이하 혹은 +2 이상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세 개의 프로그램 요소 중 두 개 이상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3개 중 2개 구성요소 이상이 -1 이하 혹은 +1 이상(어느 한쪽에 우호적)이거나 구성요소 1개가 -2 이하 혹은 +2 이상인 경우 등이 의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장 강도가 1 미만, 의견 집중도가 2 미만이면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저강도-저집중)'이라 보았으며, 주장 강도가 1 이상, 의견 집중도가 2 이상일 때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고강도-고집중)'으로 보았다. 주장 강도가 1 이상이지만 의견 집중도는 2 미만인 경우는 강한 논쟁이 이뤄지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고강도-저집중)'으로 정의한 반면, 주장 강도가 1 미만이지만 의견 집중도가 2 이상인 경우는 약한 주장이 한쪽 의견으로 집중되어 편향적인 것으로 '편애적 시사 프로그램(저강도-고집중)'으로 정의하였다. 이 가운데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가 모두 높은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으로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의견 집중도가 높으나 주장 강도가 낮은 편애적 시사 프로그램은 한쪽 편만 드는 편향성을 보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주장의 표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은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가 모두 낮은 유형으로서 저널리즘 규범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시사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지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사 프로그램이 뉴스와 달리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공론장을 형성하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한 주장 강도의 유사한 의견이 나열되는 것보다는 강한 주장 강도의 의견이 균형 있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장 강도가 높고 의견 집중도가 낮은 정론적 유형이 시사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 코더 간 신뢰도

코딩은 언론학 석사 2인이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코딩이 시작되기 전 약 2주간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 및 스크립트를 숙지하고, 기초적인 코딩 훈련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진행자, 패널, 자료화면 아이тем 각 20개씩 총 60개의 아이테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주장 강도가 비율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크리펜도르프의 알파(Krippendorff's  $\alpha$ )를 활용해 코더 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크리펜도르프 알파 값은 진행자 0.94, 패널 0.97, 자료화면 0.74로 나타나 코더들의 개별 코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코더들은 분석 대상을 절반으로 나눠 각각 코딩을 진행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차원 1: 주장의 강도(프로그램 구성요소, 아이테 주제)

연구문제 1-1에 답하기 위해 먼저 각 시사 프로그램의 주장 강도를 채널별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구성요소(Program Elements)별로 주장 강도의 채널 특성을 살펴보면, 진행자(Moderator)의 주장 강도는 평균 0.51이었다(95% 신뢰구간 0.42~0.59). KBS가 가장 약한 주장 강도(0.15)를 보이며 진행자가 중립성과 균형성을 견지한 반면, 채널A가 가장 강한 주장 강도(0.74)를 보여주며 한쪽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각 채널별 진행자의 주장 강도 평균은 KBS 0.15, JTBC 0.24, SBS 0.35, MBC 0.39, MBN 0.67, TV조선 0.69, 채널A 0.74로 나타났다. 채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6, 68.45) = 5.63, p = .000$ ), 사후검증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KBS와 MBN, TV조선, 채널A 간의 차이, JTBC와 TV조선, 채널A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아이테 당 출연한 패널(Panel)의 수는 JTBC가 가장 적었고(1.62명), TV조선이 가장 많았으며(5.28명), 패널의 주장 강도는 평균 1.25였다(95% 신뢰구간 1.18~1.31). 각 채널별 패널 주장 강도의 평균값은 SBS 0.83, MBC 1.14, 채널A 1.19, MBN 1.20, JTBC 1.38, TV조선 1.46, KBS 1.75로, SBS의 주장 강도(0.83)가 가장 약했던 반면 KBS의 주장 강도(1.75)가 가장 강했다. 이러한 채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6, 143.51) = 8.52, p = .000$ ), 사후검증 결과 KBS와 SBS, MBC, 채널A, MBN간의 차이가, SBS와 TV조선, JTBC, MBN 간의 차이가, TV조선과 채널A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p < .05$ ).

자료화면(Footage)의 주장 강도는 평균 0.41(95% 신뢰구간 0.32~0.49)로 KBS의 주

장 강도(0.15)가 가장 약했던 반면, TV조선의 주장 강도(0.72)가 가장 강했다. 각 채널별 자료 화면의 주장 강도 평균은 KBS 0.15, SBS 0.21, JTBC 0.21, MBC 0.23, MBN 0.29, 채널 A 0.70, TV조선 0.72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6, 179) = 5.90, p = .000$ ), SBS와 TV조선, 채널A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p < .05$ ).

세 가지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통합(Total) 주장 강도는 평균 0.93(95% 신뢰구간 0.87~0.98)으로 SBS의 주장 강도(0.56)가 가장 약했던 반면 TV조선의 주장 강도(1.26)가 가장 강했다. 각 채널별 통합 주장 강도의 평균은 SBS 0.56, MBC 0.72, JTBC 0.76, KBS 0.92, MBN 0.95, 채널A 1.01, TV조선 1.26으로 나타났으며 채널에 따라 주장 강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했다( $F(6, 285.82) = 15.35, p = .000$ ). 세부적으로 보면 TV조선은 KBS를 제외한 모든 채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SBS는 MBN, 채널A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프로그램 구성요소별로 정리해보면 패널의 주장 강도가 가장 높았고(평균 1.25), 그 다음은 진행자(평균 0.51), 자료화면(평균 0.41)의 순으로 나타난다. SBS를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패널의 주장 강도 값이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채널에서 패널 발언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진행자와 자료화면의 경우 모든 채널의 주장 강도 값이 1 이하로 분석되어, 이들 요소에서는 모든 채널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Argument Intensity by Broadcaster based on Program Elements

Broadcaster	Moderator			Panel			Footage			Total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KBS(a)	13	.15	.38	24	1.75	.61	13	.15	.56	50	.92	.97
MBC(b)	23	.39	.58	43	1.14	.80	22	.23	.61	88	.72	.82
SBS(c)	40	.35	.58	81	.83	.89	39	.21	.52	160	.56	.79
JTBC(d)	21	.24	.44	34	1.38	.65	19	.21	.42	74	.76	.79
MBN(e)	21	.67	.48	81	1.20	.66	21	.29	.46	123	.95	.70
TV Chosun(f)	29	.69	.47	153	1.46	.65	29	.72	.53	211	1.26	.70
ChannelA(g)	43	.74	.62	138	1.19	.84	43	.70	.64	224	1.01	.70
Total	190	.51	.57	554	1.25	.78	186	.41	.59	930	.93	.81
Statistics	$F(6, 68.45)=5.63^{***}$			$F(6, 143.51)=8.52^{***}$			$F(6, 18)=5.90^{***}$			$F(6, 285.82)=15.35^{***}$		
Post-Verification <sup>3)</sup>	d > f, g e, f, g > a (Games-Howell)			b, c, e, g > a c > d e, f > c g > f (Games-Howell)			f, g > c (Scheffe)			e, g > c b, c, d, e, g > f (Games-Howell)		

\*\*\* $p < .001$

아이템의 주제 성격에 따라 채널별 통합 주장 강도(Integrated Argument Intensity by

Broadcaster)를 살펴봤다. 조국 전 장관 이슈의 주장 강도 평균이 0.97로 기타 여야 갈등 이슈의 평균 0.86보다 높았는데( $t(928) = 2.00, p = .046$ ), 이는 시사프로그램들이 조국 전 장관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주장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및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채널별 주장 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TV조선이 가장 강했고(1.31) SBS가 가장 약했다(0.61). 각 채널별 주장 강도 평균값은 SBS 0.61, MBC 0.64, JTBC 0.72, KBS 0.81, MBN 1.05, 채널A 1.13, TV조선 1.31로 나타났다. 지상파3사와 JTBC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진 반면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개 채널은 1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채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6, 149.79) = 11.01, p = .000$ ), 사후검증 결과 TV조선, 채널A는 MBC, SBS와 차이가 유의미했고 MBN과 SBS 간 차이도 유의미했다( $p < .05$ ).

조국 전 장관 수사 및 검찰개혁 주제가 아닌 기타 여야 갈등 주제 아이тем에서도 TV조선의 주장 강도가 가장 강했던 반면 SBS 주장 강도가 가장 약했다. 전반적으로 조국 전 장관 아이тем의 주장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KBS와 MBC, JTBC는 기타 여야 갈등 관련 아이тем의 주장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채널별 주장 강도 값은 SBS 0.43, MBN, 채널A, MBC 각각 0.78, JTBC 0.79, KBS 1.04, TV조선 1.20으로 나타났는데, 채널 간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F(6, 125) = 6.77, p = .000$ ), 사후검증 결과 SBS, MBN, 채널A와 TV조선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p < .05$ ).

Table 4. Integrated Argument Intensity by Broadcaster based on Topic

Broadcaster	Total			Items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Other items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KBS(a)	50	.92	.97	27	.81	.96	23	1.04	.98
MBC(b)	88	.72	.82	42	.64	.76	46	.78	.87
SBS(c)	160	.56	.79	111	.61	.81	49	.43	.74
JTBC(d)	74	.76	.79	36	.72	.82	38	.79	.78
MBN(e)	123	.95	.70	78	1.05	.66	45	.78	.74
TV Chosun(f)	211	1.26	.70	110	1.31	.67	101	1.20	.72
ChannelA(g)	224	1.01	.80	145	1.13	.78	79	.78	.80
Total	930	.93	.81	549	.97	.80	381	.86	.81
Statistics	$F(6, 285.82) = 15.35^{***}$			$F(6, 149.79) = 11.01^{***}$			$F(6, 125) = 6.77^{***}$		
Post-Verification <sup>4)</sup>	e, g > c b, c, d, e, g > f (Games-Howell)			e > c f, g > b, c (Games-Howell)			f > c, e, g (Games-Howell)		

\*\*\*  $p < .001$

3) 등분산을 따르는 경우 Scheffe, 등분산을 따르지 않는 경우 Games-Howell의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4) 등분산을 따르는 경우 Scheffe, 등분산을 따르지 않는 경우 Games-Howell의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종합하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자료화면은 대체로 중립 혹은 균형을 견지하는 가운데 패널의 목소리를 통해 주장이 강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특히 진행자와 패널 간의 주장 강도의 차이는 KBS가 가장 컸고 채널A가 가장 작았다. 또 전반적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아이템에서의 주장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지만, KBS, MBC, JTBC는 기타 여야 갈등 아이템에서의 주장 강도가 강했다. 두 주제 유형 모두에서 TV조선이 가장 강한 주장 강도를 나타낸 반면 SBS가 가장 약한 주장 강도를 보여주었다.

## 2)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차원 2: 의견 집중도

주장 강도가 각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의견이 어떤 강도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라면 의견 집중도는 진행자, 패널, 자료화면의 주장이 하나의 아이템에서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개념이다. 전체 분석대상의 의견 집중도 평균은 0.93이었다( $F(6, 183) = 14.30, p = .000, 95\%$  신뢰구간 0.64~0.85). 평균적으로 양의 값으로서 야당에 다소 우호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의견 분포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다. 의견 집중도를 살펴보면 KBS는 -0.46, JTBC는 -0.33, MBC는 0.07, SBS는 0.58의 평균값을 보여 0과  $\pm 1$  사이에 존재했다. 여러 아이템에서 다른 의견이 주장되면서 한 가지 주장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MBN과 채널A의 의견 집중도는 각각 1.29, 1.86으로 2보다 작은 수치를 보였으며, 야당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TV조선의 의견 집중도는 2.01로 야당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검증 시 KBS, MBC, SBS, JTBC는 TV조선, 채널A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MBN은 KBS, JTBC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주제에 따라 의견 집중도를 살펴보면 조국 관련 아이템은 평균 1.32로 2보다 작은 값을 보였지만, 기타 여야 갈등 아이템 평균 값 0.3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188) = 4.11, p = .000$ ). 일반적인 여야 갈등 아이템에 비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아이템에서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의견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아이템에 대한 의견 집중도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32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야당 의견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가장 0에 가까워 집중도가 낮아 가장 균형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으며, 채널A는 2.51로 집중도가 가장 높아 야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이 나타났다. 2 이상의 값을 가진 채널은 TV조선과 채널A로 야당 편향성이 확인되었다. 채널별로 보면 JTBC -0.40, KBS -0.07, MBC 0.23, SBS, 0.88, MBN 1.85, TV조선 2.23, 채널A 2.51로 나타났으며 채널 간 차이는 유의미했다( $F(6, 103) = 16.99, p = .000$ ). 사후검증 결과 MBN, TV조선, 채널A는 KBS, MBC, JTBC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

있으며 SBS는 TV조선, 채널A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기타 여야 갈등 관련 아이템의 7개 채널의 의견 집중도 평균은 0.39로 모든 채널이 2 미만의 값을 가지며, 조국 전 장관 아이টে에 비해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MBC가 0에 가장 가까운 의견 집중도를 보인 반면 TV조선이 1.77로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의견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상파 3사와 JTBC의 의견 집중도는 음의 수치로서,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정부 여당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반면, TV조선은 야당에 가장 우호적이었다. 채널별 평균값은 KBS -0.92, JTBC -0.27, SBS -0.14, MBC -0.08, MBN 0.38, 채널A 0.87, TV조선 1.77로 나타났으며, 채널 간 차이는 유의미했다( $F(6, 73) = 3.86, p = .002$ ). 사후검증 결과 TV조선과 KBS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의견 집중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조국 전 장관 아이টে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야당 편향성이 확인되었으며 MBN의 경우에도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여야 갈등 관련 아이টে의 경우 야당 편향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채널은 없었으나, TV조선의 경우 다른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이었다. 여야 갈등이 있는 아이টে 전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TV조선이 야당 편향적이었으며 채널A와 MBN은 야당에 우호적인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상파 3사와 JTBC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Table 5. Concentration of Opinions by Item

Broadcaster	Total			Items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Other items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KBS(a)	13	-0.46	1.14	7	-.07	.93	6	-.92	1.28
MBC(b)	23	0.07	1.88	11	.23	.85	12	-.08	2.52
SBS(c)	40	0.58	1.32	28	.88	1.46	12	-.14	.41
JTBC(d)	21	-0.33	1.00	10	-.40	.57	11	-.27	1.31
MBN(e)	21	1.29	1.30	13	1.85	1.07	8	.38	1.17
TV Chosun(f)	29	2.01	0.66	15	2.23	.64	14	1.77	.61
ChannelA(g)	43	1.86	1.56	26	2.51	.97	17	.87	1.79
Total	190	0.93	1.60	110	1.32	1.45	80	.39	1.65
Statistics	$F(6, 183) = 14.30^{***}$			$F(6, 103) = 16.99^{***}$			$F(6, 73) = 3.86^{**}$		
Post-Verification <sup>5)</sup>	f, g > a, b, c, d e > a, d (Scheffe)			e, f, g > a, b, d f, g > c (Scheffe)			f > a (Scheffe)		

\*\* $p < .01$ , \*\*\* $p < .001$

### 3)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지형

편향성 지형을 살펴보기 위해 주장 강도를 x축, 의견 집중도를 y축으로 놓고 각 시사프로그램을 위치시켜본 결과, 분석 대상 시사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낮은 주장 강도와 낮은 의견 집중도 수준을 나타냈다. 즉 정부 여당과 야당 각각의 주장이 고루 제시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주장 강도 값이 상쇄되어 균형에 가까워지는 분포를 보였다. 여야 갈등이 있는 아이템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5개의 채널(KBS, MBC, SBS, JTBC, MBN)은 주장 강도와 의견 집중도가 모두 낮아 특정 입장에 대한 편들기가 적고 균형 있게 전달하는 기계적 중립 시사프로그램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KBS와 JTBC의 경우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반면 MBC, SBS, MBN은 야당에 우호적이었는데, 이들 5개 시사 프로그램 모두 의견 집중도 수준이 낮아 비교적 균형적인 의견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널A의 경우 의견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야당에 우호적인 특성이 두드러졌고, TV조선은 다른 6개 채널에 비해 의견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야당에 편향적인 특성을 보였다. 채널A는 기계적 중립 시사프로그램과 정론적 시사프로그램 경계선상에, TV조선은 독선적 시사프로그램과 정론적 시사프로그램 경계선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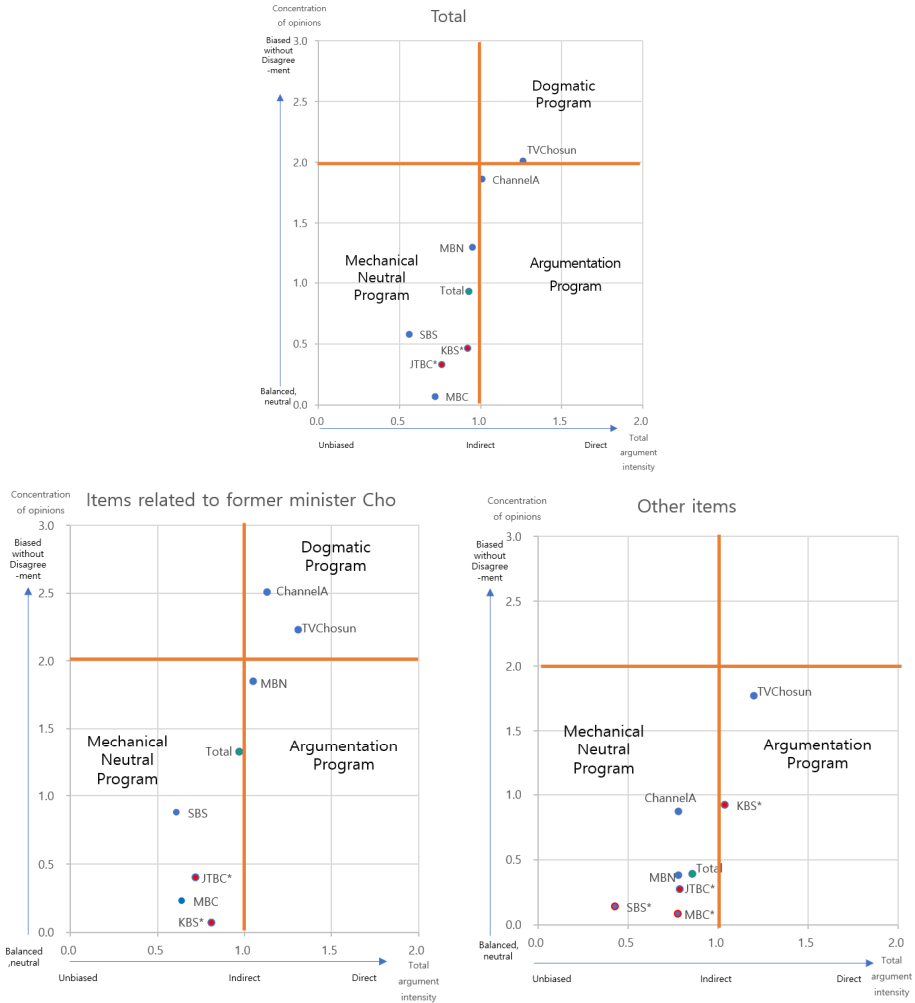
조국 전 장관 수사 및 검찰개혁 주제와 관련해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와 JTBC는 주장 강도가 낮고 의견 집중도가 낮아 균형적으로 전달하며 편향성이 적어 기계적 중립 시사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KBS와 JTBC는 조국 전 장관 및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MBC와 SBS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4개 채널 모두 기계적 중립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MBN의 경우 앞의 4개 채널에 비해 의견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장 강도 또한 상대적으로 커 야당에 우호적인 정론적 시사프로그램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반면 채널A와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은 강한 주장 강도와 높은 의견 집중도로 편향성이 컸으며 조국 전 장관 및 검찰개혁에 비판적이며 야당에 우호적인 독선적 시사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여야 갈등 아이টে을 다뤘을 때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에 비해 전반적으로 편향성이 낮았다. MBC, SBS, JTBC는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반면 MBN과 채널A는 야당에 우호적이었으나 주장 강도가 약하고 의견 집중도가 낮아 기계적 중립 시사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TV조선의 주장 강도 및 의견 집중도가 다른 6개 채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의견 집중도가 2 미만으로 야당에 우호적인 정론적 시사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KBS는 상대적으

---

5) 등분산을 따르는 경우 Scheffe, 등분산을 따르지 않는 경우 Games-Howell의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로 강한 주장 강도와 낮은 의견 집중도로 기계적 중립 시사프로그램과 정론적 시사프로그램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 The value of opinion concentration is negative, meaning that it is biased towar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Figure 1. Quadrant coordinates of bias in current affairs program

##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에서 개발한 편향성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낮 시간대에 방송되는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했다. 프로그램 구성요소인 진행자, 패널, 자료화면의 주장 강도와 아이템별 의견 집중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지형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자료화면의 주장 강도는 1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패널의 경우 1 이상의 수치를 보여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진행자와 자료화면은 중립 및 균형을 유지하지만, 패널이 강한 주장을 하면서 이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사 프로그램이 진행과 구성에서는 관습적인 기계적 균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편향성에 대한 책임이 가벼운 패널을 다수 출연시켜 특정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이슈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전반적으로 지상파 채널(KBS, MBC, SBS)과 종합편성채널 중 JTBC는 의견 집중도가 낮은 반면,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의 의견 집중도는 이들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채널 간 시사 프로그램 성격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KBS와 JTBC의 의견 집중도가 낮아 균형이나 중립에 가까웠다면, 정부에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TV조선과 채널A의 의견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편향성을 확인했던 기존 연구 결과(원희영·윤석민, 2015; 조은영·유세경, 2014)와 일치하며, 그간 제기되어온 종편 정치토크 혹은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의 정파적 편향성(구교태, 2016; 하주용, 2014, 12월 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반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지형을 그렸을 때, 다수의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소수의 프로그램은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TV조선, 채널A, MBN의 경우 일반적인 여야 갈등 아이템에서는 의견 집중도가 높지 않았으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편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은 조국 전 장관 이슈에서 다른 채널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야당 편향성을 보였다. 지상파 채널 및 JTBC는 조국 전 장관 이슈에 대해 대체로 약한 주장을 펼치면서 균형적으로 의견을 다루어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은 논쟁이 약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중립적이거나 균형적인 프로그램(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110쪽)으로서



저널리즘 규범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논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이 기계적 중립 혹은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아이টে을 제외한 기타 여야 갈등 아이টে을 대한 분석에서 TV조선이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의 영역에 포함되었으며, KBS는 기계적 중립과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아이টে을 대한 분석에서는 MBN이 기계적 중립과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의 경계에, 전체 아이টে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채널A가 기계적 중립과 정론적 시사프로그램의 경계에, TV조선이 독선적과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의 경계에 각각 위치했다.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은 “강한 논쟁이 이루어지지만 다양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담아내는 유형”(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110쪽)으로서 뉴스와 달리 다양한 주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TV조선과 KBS, MBN, 채널A 등이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이 주제에 따라 정론적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독선적 혹은 기계적 중립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 등 기복을 보이는 점은, 시사 프로그램이 저널리즘 규범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되는 이슈가 등장하면 언제든 시사 프로그램이 독선적인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로운 논쟁과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의 포맷과 제작 방식을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일반적인 여야 갈등 이슈에 대해 지상파 3사 및 JTBC는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KBS의 시사프로그램이 정부 여당에 가장 우호적인 의견 집중도를 나타냈다. 특히 KBS의 경우 진행자의 주장 강도가 전체 분석 프로그램 중 가장 약했지만(0.15) 패널의 주장 강도는 가장 높아(1.75) 둘 간의 강도 차이가 컸다. 진행자는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패널을 통해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강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시사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균형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패널의 선정과 발언을 통해 정부·여당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국 밖에서 제작되는 KBS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외부 출연자에서 나타난 친여 편향성(이원재, 2020, 7월)이 보도국 제작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낮 시간대에 방송되는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미디어 편향성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학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2019) 연구의 반복연구로서 분석대상을 지상파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확대하여 TV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 정도 및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연구에서는 지상파 채널의 시사프로그램 대부분이 기계적 중립 혹은 독선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으며 정권에 따라 편향성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여야 갈등 아이템에서 지상파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내 시사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기계적 중립 혹은 독선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이후 토크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면서 학술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선정적이고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문제(정은교·금희조, 2014), 정통적인 저널리즘 담화방식에서 벗어난 사담 양식의 정치적 차별과 배제(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자막의 편향성(구교태, 2016), 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원희영, 윤석민, 2015; 조은영·유세경, 2014)에 관한 연구들이 그 예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이 야당 편향성(혹은 보수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입증했다.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방송사의 편향성 양상을 정리하면, 지상파 채널은(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정부·친여 편향성, JTBC는 진보 편향성, 나머지 종합편성채널은 보수 편향성을 보인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편향성은 언론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모든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추구한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기 어려우며 주요 사안에 대한 공적인 토론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 특히 뉴스와는 다른 시사 프로그램의 속성을 고려할 때 편향성의 문제는 배척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른 편향성을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근본적인 속성으로서 편향성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지향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반드시 저널리즘 규범의 범주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즉 주장의 강도 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의견 집중도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포맷을 구성하는 것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작 가이드라인과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체의 언론 지형의 관점에서는 진보 편향 및 보수 편향 언론이 어느 한 편에 쏠림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 결과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제작 현장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향적인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다. 시사 프로그램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조정하는 상관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일부 시사 프로그램이 편향성 지형에서 독선적 시사 프

로그래밍의 유형을 보인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편향성이 종합편성채널에서 확  
인됐다는 점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일부 종합편성채널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  
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구교태, 2016; 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7 등). 독선적 프로그  
램의 문제는 강력한 주장을 전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을 고루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패널을 고루 출연하도록 하는 등 의견 집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편향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계적 중립 시사 프로그램은 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판을 받을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시사 프로그램 포맷과 진행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사 프로그램이 스  
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며 논쟁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기계적 중립성을 고수  
한다는 것은 자칫 의견의 나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진영 논리와 그에 따른 갈등  
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밀도 있고 치열한 논쟁은 필수적이다. 시안에 따라 강한 주장을  
주요받으면서 열띤 논쟁을 펼침으로써 결론 혹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이 우  
리 사회에 필요하다. 따라서 강한 주장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의 포맷과 진행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기  
계적 중립을 고수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이 시간대와 포맷이 겹치는 경쟁 환  
경에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 형식에서 벗어나 논쟁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궁극적으로 시사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규범 정립의 필요성으로 귀결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채널의 프로그램들이 이슈에 따라 정론적 프로그램과 독선적/기계적  
중립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것은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강도 높은  
주장을 허용하면서 넓은 스펙트럼 상의 다양한 의견이 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패널 선정의 원칙  
을 정립하고, 토론을 밀도 있게 전개할 수 있는 포맷을 개발하며, 자료화면 사용에 관한 세부적  
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규범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지형을 확인하고 학술적, 실천  
적 함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채널별  
로 낮 시간대에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각각 한 편씩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채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낮 시간대에 방송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형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지상파 채널 및 JTBC 시사 프로그  
램은 영상뉴스와 뉴스 속보, 대담 코너가 고루 분포되어 보도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한 반면,  
MBN과 TV조선,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은 여러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포맷이 더 많이 구

성되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이 편향성 분석 결과에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포맷의 차이를 연구 설계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연구는 편향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발언의 맥락을 연구 설계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발화의 양태와 맥락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Cho, E., & Yu, S. (2014). A Study on the Diversity of News Coverage among TV Channels: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Railway Strike News Coverag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3), 433-461.
- Choi, S., Yoo, S., & Yang, S. (2012). Contents: Competition in the News Market and Media Bias: Measuring the Bias in the Quotation of News Sourc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19(2), 69-92.
- Choi, Y. (2011, May). The vicious circle of split politics, split media, and split public opinion. Symposium and Seminar of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137-152.
- Choi, Y. (2014). Partisan Schism in Public Broadcast Newsroom: the Paradox of Democracy and Political Subordination. *Communication Theories*, 10(4), 476-510.
- Clayman, S. E., Elliott, M. N., Heritage, J., & Beckett, M. K. (2010). A watershed in White House journalism: Explaining the post-1968 rise of aggressive presidential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27(3), 229-247.
- Eberl, J. M., Boomgaarden, H. G., & Wagner, M. (2017). One bias fits all? Three types of media bias and their effects on party preferences. *Communication Research*, 44(8), 1125-1148.
- Gu, K. (2008). A Study of Critical Issues in the '07 Presidential Campaig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8(1), 5-38.
- Gu, K. (2016). A study of captions in current affairs programs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6(1), 37-58.
- Ha, J. (2014).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Newly Licensed 'Comprehensive Programming' TV Channels in Korea: Can They Meet the Policy Goal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85, 37-67.
- Ha, J. (2014, December). Is it as good as this flood of general political talk programs? *Kwanhun Journal*, 133, 67-73.
- Hallin, D.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borg, F., Donnay, K., & Gipp, B. (2019). Automated identification of media bias in news articles: an interdisciplinary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n Digital Libraries*, 20(4), 391-415.

-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NU. (2019).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urrent Affairs Program i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rison of Park and Moon governments. Retrieved 6/15/2021 from <https://icr.snu.ac.kr/ko/board/project>
- Jung, E. & Keum, H. (2014). Information or Entertainment? : The Political Effects of Political Entertainment Talk Sho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5), 362-390.
- Kang, J. (2013). *Hate commercialism*. Seoul: Character and Intellectual History.
- Kang, C. (2013). Problems and Solutions of Political Criticism in Broadcasting: Focusing on Current Affairs Program. *Kwanhun Journal*, 128, 249-258.
- Kim, B., Lee, S., & Yang J. (2017). Bias in TV News Coverage of President Park's Impeachment : Focusing on MBC and JTBC Evening New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1), 554-566.
- Kim, K., & Lee, S. (2018). News Audiences' Perceptual Biases and Assessment of News Fairness : An Analysis of the Influences of Trust for Media, Message Bias, Self-categorization, and Self-enhancement. *Communication Theories*, 14(3), 145-198.
- Kim, K., Lee S., & Kim, S. (2016). News Media Literacy: A Theoretical Amalgam of Self-Categorization and Elaboration Likelihood. *Communication Theories*, 12(3), 4-48.
- Kim, Y. (2009). The readers' view of the political bias in the Korean media. *Media Insight*, 3, 2-20.
- Kim, Y. (2011, May). The Korean media's political bias and crisis of social communication. Symposium and Seminar of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107-136.
- Kim, Y., & Lim, Y. (2009). An Analysis of News Reports about Government-Media Relationships and Media Policies : Comparison of News Contents under Noh-Lee Governm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4), 94-115.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Terminology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 Lazaridou, K., & Krestel, R. (2016). Identifying political bias in news articles. *Bulletin of the IEEE TCDC*, 12.
- Lee, J., Jung, N., & Kim, S. (2017). An Analysis of Broadcast News Coverage on the 20t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97, 129-163.
- Lee, S., Yang, G., & Lee, S. (2017). Political Bias of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 Focusing on News Coverage in the 6th Local Election in 2014.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1), 149-183.
- Lee, W. (2020, July).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current affairs program of the Korean public broadcaster

- through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host and fixed panel member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Spring Symposium.
- Lee, W., & B, J. (2015). Asymmetric Bias of the Ferry Sewol Accident News Frame: Discriminatory Aspects and Interpretive of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274-298.
- Lichter, S. R. (2017). Theories of media bia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403.
- Min, Y. (2016). When We Trust : The Effects of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and Partisan Bias on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and Politic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6), 127-156.
- Mullainathan, S., & Shleifer, A. (2002). Media bias (No. w929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ark, J., Kim, Y., & Sohn, B. (2014). A Current Affairs TV Show, Emotions and Their Ideological Effects. *Media & Society*, 22(2), 5-63.
- Rhee, J., & Choi, Y. (2005). Causes of the Crisis in Korean Newspapers: Functional Displacement in Media Use, Provision of Lower Value, and Trust Crisi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5), 5-35.
- Rhee, J., Cho, H., Song, H., & Jung, J. (2010). A Comparative Systematic Approach to Media System: the Korean Case. *Communication Theories*, 6(1), 87-143.
- Schiffer, A. J. (2006). Assessing partisan bias in political news: The case(s) of local senate election coverage. *Political Communication*, 23(1), 23-39.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Tsfati, Y., & Cohen, J. (2005). Democratic consequences of hostile media perceptions: The case of Gaza settler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0(4), 28-51.
- Van Dalen, A. (2012). Structural bia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How political systems and journalism cultures influence government dominance in the new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7(1), 32-55.
- Won, H., & Youn, S. (2015). A Content Analysis on the Fairness of the Main News of Korean General Programming TV Stations : Centered around Main News During the 18th Pre-Presidential Election Period.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1), 117-148.
- Yang, J. (2001). Media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 A Case Study of Medical Doctor's Strik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2), 284-315.
- Yoo, S. & Lee, G. (2017). A Study on the Tone Difference among 4 General Programming Cable Channels

News Programs : Content Analysis of News Articles about Free Welfare Issu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1), 7-35.

Youn, S. (2020). *Media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Media Normativism*. Paju: Nanam.

Youn, Y. (2000). Power Shift and New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 Analysis of Press-party Parallelism. *Media & Society*, 48-81.

Youn, Y. (2007). Role of Newscasters in South Korean TV Journalism: Gatekeeper or Advocate.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4(1), 37-64.

## Newspaper Articles

Jung, C. (2019, February, 11). *Chosunilbo Tunned to 'Kim Eo-jun, Kim Yong-min, Choi Wook'*. Mediatoday.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6>

Jung, C. (2019, February, 15). *The Chosunilbo's Big Picture: A Terrestrial Tragedy Lost in Fairness*. Mediatoday.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56>

Jung, M. (2019, February, 12). *The Chosunilbo Media Research Institute that ordere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ort on the controversial bias*. Mediatoday.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06>

Jung, M. (2019, February, 25). "Terrestrial bias report" Professor "The Chosunilbo contacted us first". Media today.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17>

Keum, J. (2019, February, 15). *Controversy over Chosunilbo's order for research is being asked by media scholars*. Mediatoday.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61>

Kim, J. (2019, February, 17). "Unfairnes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fessor Yoon Seok-min's "self-segmentation" and unfair research. Newstof.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

Lee, J. (2019, February, 14). *Ten Questions About the Report of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ported by the Chosun ilbo"*. Ohmynews.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178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1782)

Lee, J. (2019, February,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who shot terrestrial waves with the support*



- of the Chosunilbo. Mediatoday.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35>
- Lee, M. (2019, February, 12). *Chosun Ilbo reports suspicious reports, Focus on hitting terrestrial broadcasting*. Pd Journal.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39>
- Lee, M. (2019, February, 13). *The reason why the Chosunilbo's "mirroring" hitting broadcast failed?*. Pressian.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8734?no=228734#0DKU>
- Moon, H. (2019, February, 13). *The "terrestrial bias" research report reported for three days by the Chosun ilbo is ordered by the Chosunilbo Media Research Institute*. Hankyoreh.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81948.html>
- Shin, D. & Gu, B. (2019, February, 11). *Eo-jun Kim and Yong-min Kim, unilateral advocate of the government*. Chosunilbo.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6.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6.html)
- Shin, D. & Gu, B. (2019, February, 12). *When an issue breaks out, speakers who are friendly to the ruling party come out*. Chosunilbo.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025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0259.html)
- Shin, D. & Gu, B. (2019, February, 13a). *Terrestrial radios tune in to Moon Jae-in government*. Chosunilbo.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8.html)
- Shin, D. & Gu, B. (2019, February, 13b). *TV current affairs programs pours out factional claims rather than facts*. Chosunilbo.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15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159.html)
- Shin, D. & Gu, B. (2019, February, 13c). *As the presidents change in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V current affairs intensify bias*. Chosunilbo.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217.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217.html)

최초 투고일	2021년	02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1년	05월	15일
논문 수정일	2021년	06월	01일

## 부록 국문 참고문헌

- 강준만 (2013). *증오 상업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찬호 (2013). 방송 정치평론의 문제점과 해법: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128호, 249-258.
- 구교태 (2008). 한국 방송의 선거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2007 대통령 선거방송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1호, 5-38.
- 구교태 (2016).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자막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37-58.
- 김경모·이승수·김상정 (2016). 정파적 수용자의 적대적 매체 지각과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이론>, 12권 3호, 4-48.
- 김경모·이승수 (2018). 뉴스 수용자의 지각 편향과 뉴스 공정성 평가: 언론 신뢰, 메시지 편향성, 자기범주화, 자기-고양의 영향력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14권 3호, 145-198.
- 김병진·이상은·양종훈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MBC 와 JTBC 의 저녁종합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11호, 554-566.
- 김영옥 (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 인사이트>, 3호, 2-20.
- 김영옥·임유진 (2009).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기 차원 비교 평가.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94-115.
- 김영옥 (2011, 5월).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07-136.
- 민영 (2016). 신뢰의 조건: 저널리즘 전문성과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127-156.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종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쾌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3.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 Retrieved 6/15/2021 from <https://icr.snu.ac.kr/ko/board/project>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원희영·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 유수정·이건호 (2017). 메인 뉴스 논조 차별화가 드러낸 한국 종편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61권 1호, 7-35.
- 윤석민 (2020).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 규범성의 정립과 실천>. 파주: 나남.
-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호, 48-81.
- 윤영철 (2007). 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개입에 관한 연구: <KBC 뉴스 9>, <생방송 시사투나잇>, <추적 60분>의 비교분석. <언론정보연구>, 44권 1호, 37-64.
- 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권 1호, 149-183.
- 이완수·배재영 (2015).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언론의 차별적 관점과 해석 방식. <한국언론정보학보>, 71호, 274-298.
- 이원재 (2020, 7월).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을 통해 본 한국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정치적 지형. 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
- 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7). 선거 방송의 평가 기준과 실제. <방송통신연구>, 97호, 129-163.
- 이준용·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이준용·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한국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 87-143.
- 조은영·유세경 (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433-461.
- 최선규·유수정·양성은 (2012). 뉴스 시장의 경쟁과 미디어 편향성: 취재원 인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9권 2호, 69-92.
- 최영재 (2011).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37-152.
- 최영재 (2014). 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민주화의 역설, 정치적 종속의 결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4호, 476-510.
- 하주용 (2014).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성과 분석: 사회문화적 성과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5호, 37-67.
- 하주용 (2014, 12월). 종편 ‘정치토크’ 프로그램 홍수 이대로 좋은가. <관훈저널>, 133호, 67-73.
- 한국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신문기사

- 금준경 (2019, 2, 15). 조선일보 연구 발주 논란, 언론학계에 묻는다. <미디어오늘>.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61>
- 김준일 (2019, 2, 17). “지상과 불공정” 윤석민 교수의 ‘자아분열’과 불공정한 연구. <뉴스톱>.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
- 문현숙 (2019, 2, 13). 조선일보 사흘간 보도한 ‘지상과 편향’ 연구 보고서 발주처는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 <한겨레>.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81948.html>
- 신동훈·구본우 (2019, 2, 11). 김어준·김용민, 정부 일방적 옹호. <조선일보>.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6.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6.html)
- 신동훈·구본우 (2019, 2, 12). 이슈 터지면 親與 스피커 총출동. <조선일보>.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025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0259.html)
- 신동훈·구본우 (2019, 2, 13a). 지상과 라디오들, 文정부에 주파수. <조선일보>.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198.html)
- 신동훈·구본우 (2019, 2, 13b). TV 시사프로, 사실보다 정파적 주장 쏟아내. <조선일보>.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15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159.html)
- 신동훈·구본우 (2019, 2, 13c). “文정부 들어 사정들 바뀌자, TV 시사프로 편향성 심해져”. <조선일보>.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217.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0217.html)
- 이명선 (2019, 2, 13). <조선일보>의 방송 때리기 ‘미러링’이 실패한 이유? <프레시안>.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8734?no=228734#0DKU>
- 이미나 (2019, 2, 12). 수상한 보고서 받아쓴 ‘조선일보’, ‘지상과 때리기’ 몰두. <피디저널>. Retrieved 2/12/2021 from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39>

- 이정환 (2019, 2, 14). '조선일보 지원' 서울대 교수 보고서에 대한 열가지 의문. <오마이뉴스>.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178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1782)
- 이정환 (2019, 2, 16). 조선일보 지원 받아 지상파 저격한 서울대교수. <미디어오늘>.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35>
- 정민경 (2019, 2, 12). 편향성 논란 서울대 보고서 발주처는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미디어오늘>.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06>
- 정민경 (2019, 2, 25). '지상파 편향 보고서' 교수 "조선일보가 먼저 연락". <미디어오늘>.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17>
- 정철운 (2019, 2, 11). '김어준·김용민·최욱'에 주파수 맞춘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6>
- 정철운 (2019, 2, 15.). '공정성 잃은 지상파' 조선일보의 빅픽처. <미디어오늘>. Retrieved 2/12/20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56>

## TV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유수정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강사)

국내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의 특징과 채널별 편향성 지형을 확인하고자 지상파(KBS, MBC,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MBN, JTBC,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진행자, 패널, 자료화면의 주장 강도 및 아이템별 의견 집중도를 측정했으며, 주장 강도를 x축, 의견 집중도를 y축으로 하는 좌표를 통해 편향성 지형을 파악했다. 전반적으로 진행자와 자료화면의 주장 강도는 낮은 반면 패널의 주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제의 아이템이 기타 주제의 아이템에서보다, 채널별로는 TV조선, 채널A, MBN이 다른 채널보다 주장 강도가 높았다. 의견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KBS와 JTBC는 정부 여당 우호적이며 나머지 채널은 야당 우호적이었다. 주제별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제의 아이템이 기타 주제의 아이템에서보다 의견 집중도가 높았으며,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제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향성 지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기계적 중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으며, TV조선이 독선적 프로그램과 정론적 프로그램의 경계에 있었다. 편향성 지형은 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제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독선적 시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주제에서는 TV조선이 정론적 시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TV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지형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범 정립의 필요성과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 TV 시사 프로그램, 정치적 편향성, 주장 강도, 의견 집중도